BULLETPROOFS

FROM ZERO (KNOWLEDGE)
TO BULLETPROOFS

REFERENCES

Adam Gibson, "From Zero (Knowledge) to Bulletproofs"

REFERENCES

- Groth, Jens. "Linear algebra with sub-linear zero-knowledge arguments." Annual International Cryptology Conference. Springer, Berlin, Heidelberg, 2009.
- ▶ Bootle, Jonathan, et al. "Efficient zero-knowledge arguments for arithmetic circuits in the discrete log setting."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s. Springer, Berlin, Heidelberg, 2016.
- ▶ Bünz, Benedikt, et al. "Bulletproofs: Short proofs for confidential transactions and more." 2018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(SP). IEEE, 2018.

BEFORE READ THE PAPER

- 표기법
 - ▶ 정수(스칼라)는 평문 소문자: x
 - 타원 곡선 상의 점은 대문자: X
 - ightharpoonup 스칼라배(scalar multiplication)는 기호 생략: <math>xY
 - ▶ 벡터는 굵은 글씨: x, X
 - ▶ 행렬은 mathbb: ※
 - 식 $a_1G_1 + a_2G_2 + \ldots + a_nG_n$ 은 두 벡터의 내적 $\mathbf{a}G$ 으로 표기

INTRODUCTION

INTRODUCTION

- 목표
 - "벡터를 공개하지 않고서, 연루된 커밋(commits)으로부터 알고 있음을 증명"
 - * "원본을 숨기며, 커밋된 두 벡터의 내적이 0임을 증명"

INTRODUCTION

- 와 "벡터들을 공개하지 않고서, 그 벡터들을 알고 있음을 증명"하는 것이 유용한가?
- 왜 하필이면 벡터와 내적인가?
 - 벡터의 집합을 행렬로 인코딩할 수 있음
 - ▶ 내적만이 아니라 행렬곱, 역행렬, 아다마르 곱(Hadamard product)으로 확장 가능
 - ▶ 삼각행렬(triangular matrix)인 경우에는 각종 기이(!)하고 유용한 연산 가능

- ▶ 암호학적(Cryptographic) 커미트먼트는 강력한 기술
 - 나중에 참이었음을 밝히기 전에,
 - 모엇인가를 지금은 숨긴 상태에서 참인 것으로 확약하고 싶을 때 사용

- 거미트먼트를 구현하는 방법 1
- ▶ 단방향 함수(one-way function)을 사용
 - 암호학적 해시 함수
 - ▶ 값 2를 커밋하고 싶으면, 2에 대한 해시를 전송:
 - * "53c234e5e8472b6ac51c1ae1cab3fe06fad053beb8ebfd8977b010655bfdd3c3"

- 문제
 - 고작 2에 대해 "53····c3"을 전송해야 함
 - ▶ 의미상(semantic) 보안의 결핍
 - ▶ 누군가가 2와 "53····c3"의 연관성을 알아낸다면
 - 더 이상 은닉성을 제공하지 못함

- > 커미트먼트를 구현하는 방법 2
- 무작위 값을 섞어서 커밋
 - (2 + 무작위 값) 조합을 커밋
 - > SHA256(secret_number | random_characters)

- > 커미트먼트를 구현하는 방법 2
- 무작위 값을 섞어서 커밋
 - 나중 단계에서 "값"과 "무작위 값"의 공개를 요청
 - 방법 1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속성 제공

- 방법 2는 커미트먼트 스킴이 가지는 주요한 두 속성을 모두 충족
 - 은닉(Hiding): 커미트먼트 C는 커밋한 값을 드러내지 않음
 - ▶ 구속(Binding): 커미트먼트 C(m)을 m으로부터 만든 이상, 다른 메시지 m'으로부터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음

- 문제
 - ▶ 해시 함수는 동형(homomorphic)의 특징을 갖지 않음
 - SHA256(a) + SHA256(b) = SHA256(a+b)가 성립하지 않음
 - 활용하기 좋은 수단이 아님
- ▶ 동형 커미트먼트 스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?

EC PEDERSEN COMMITMENT

- 타원 곡선 형태의 페더슨 커미트먼트
 -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, 타원 곡선을 활용
- 타원 곡선계에서의 단방향 함수
 - 곡선 상의 점에 대한 스칼라배

EC PEDERSEN COMMITMENT

- ▶ 타원 곡선 상의 점에 대한 스칼라배
- C = rH + aG
 - C: 커미트먼트로 사용할 곡선 상의 점
 - a: 커밋할 값(숫자), r: 은닉을 제공하기 위한 무작위 값
 - **G**: 생성자 점
 - H: 또 다른 곡선 상의 점, 아무도 H=qG를 만족하는 이산 로그 q를 몰라야 함 (Nothing Up My Sleeve, NUMS)

EC PEDERSEN COMMITMENT

- ▶ 페더슨 커미트먼트는 동형의 특징을 가짐
 - $C(r_1, a_1) + C(r_2, a_2)$
 - $= r_1 H + a_1 G + r_2 H + a_2 G$
 - $= (r_1 + r_2)H + (a_1 + a_2)G$
 - $= C(r_1 + r_2, a_1 + a_2)$
- > 커미트먼트들의 합은, 각 값의 합과 무작위 값의 합을 커미트먼트한 것과 같음

VECTOR PEDERSEN COMMITMENT

- 벡터 페더슨 커미트먼트
 - C = rH + aG를 더 강력한 형태로 확장
 - $C = rH + (v_1G_1 + v_2G_2 + ... + v_nG_n) = rH + vG$
- 간결함에서 주된 효과
 - 벡터는 임의의 큰 숫자의 원소들로 구성될 수 있으나,
 - ho 오직 단 하나의 점 C에 커밋됨

VECTOR PEDERSEN COMMITMENT

- 2개 또는 더 많은 벡터를 포괄하도록 확장 가능
 - ightharpoonup 각 벡터를 위한 N개의 NUMS 기반 곡선 상의 점만 있으면 됨
 - C = rH + vG + wH

- > 지식 논의(Knowledge arguments)
 - 증명이 오직 계산적임을 내포
 - > 지식 증명(proofs)과는 구분되는 기술 용어

- > 영지식 증명은 확률적인 건실성을 제공하지만,
- 영지식 논의는 연산적 건실성을 제공
 - 충분한 연산 능력(매우 클 것이지만)을 가진 상대는
 - 시지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
 - 아마도 그가 비밀 값(들)을 알고 있다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음

- 지식 논의
 - ▶ 각자 $N(\neq m)$ 차원을 가지는 m개의 벡터 $\mathbf{x_1}, \mathbf{x_2}, \dots, \mathbf{x_m}$
 - 가지의 커미트먼트 집합을 생성하고 나서 논할 수 있음
 - $C_1 = r_1 H + \mathbf{x}_1 \mathbf{G}$ $C_2 = r_2 H + \mathbf{x}_2 \mathbf{G}$ $C_m = r_m H + \mathbf{x}_m \mathbf{G}$

- 거미트먼트들은 완벽한 은닉을 제공하므로
 - 이들로부터 벡터를 알아낼 수 없음
- 이 커미트먼트들을 공유
- 이제 이들 모두를 개방할 수 있다는 영지식 관련 논의를 수행할 수 있음

- > 영지식 논의 상호 절차
 - $P \rightarrow V: C_0$ (새롭게 선택한 N차원의 무작위 벡터에 대한 새 커미트먼트)
 - $V \rightarrow P : e$ (무작위 스칼라)
 - $P \rightarrow V: (\mathbf{z}, s)$ (N차원의 벡터와 스칼라)
- 마지막 두 값은:

 - > 덧셈(Sigma)이 0부터 시작함에 유의

- ▶ 어떻게 벡터 x를 은닉시키는가?
 - **z**의 한 요소 $\mathbf{z_2} = x_{02} + ex_{12} + \dots + e^m x_{m2}$ 는
 - ▶ 벡터의 값을 <u>덧셈으로</u> 은닉

- (z, s)를 받으면, 검증자는 이 증명이 유효한지를 다음과 같이 검증
 - 기호 =? 는 등호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확인한다는 의미
 - 만일 같다면 증명은 참
 - 그렇지 않으면 증명은 거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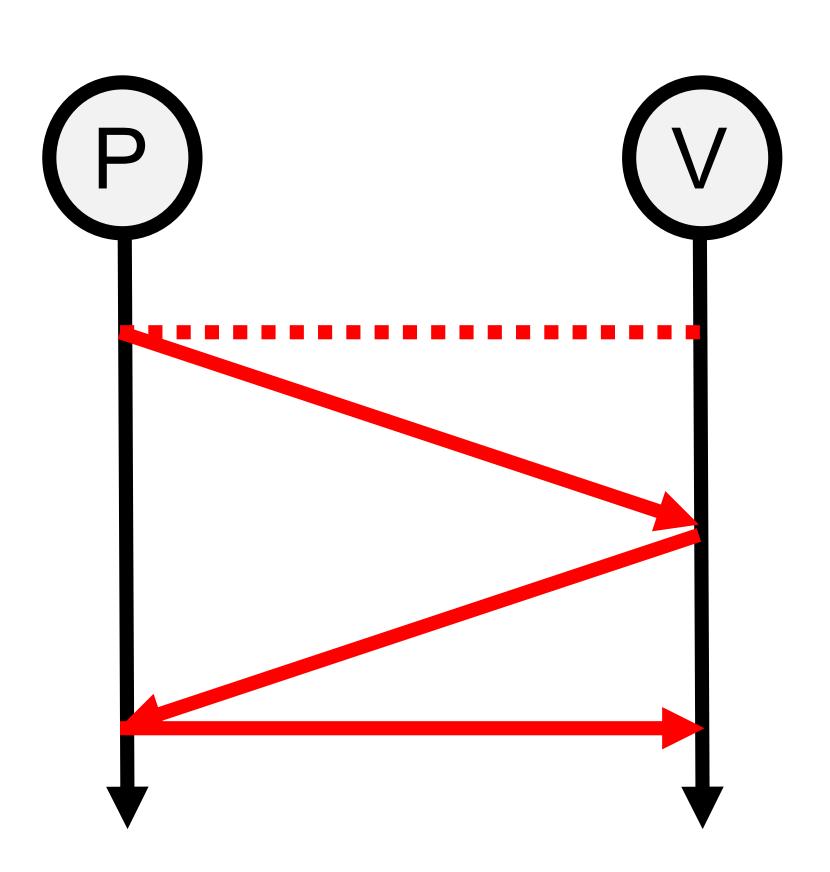
$$\sum_{i=0}^{m} e^{i}C_{i} = ?sH + \mathbf{zG}$$

- ▶ 완결성(Completeness)
 - 아 유효성 검사의 우변을 확장: $sH + \mathbf{z}\mathbf{G}$ $= \sum_{i=0}^{m} e^{i}(r_{i}H) + \sum_{i=0}^{m} e^{i}\mathbf{x}_{i}\mathbf{G}$ $= \sum_{i=0}^{m} e^{i}(r_{i}H + \mathbf{x}_{i}\mathbf{G})$ $= \sum_{i=0}^{m} e^{i}C_{i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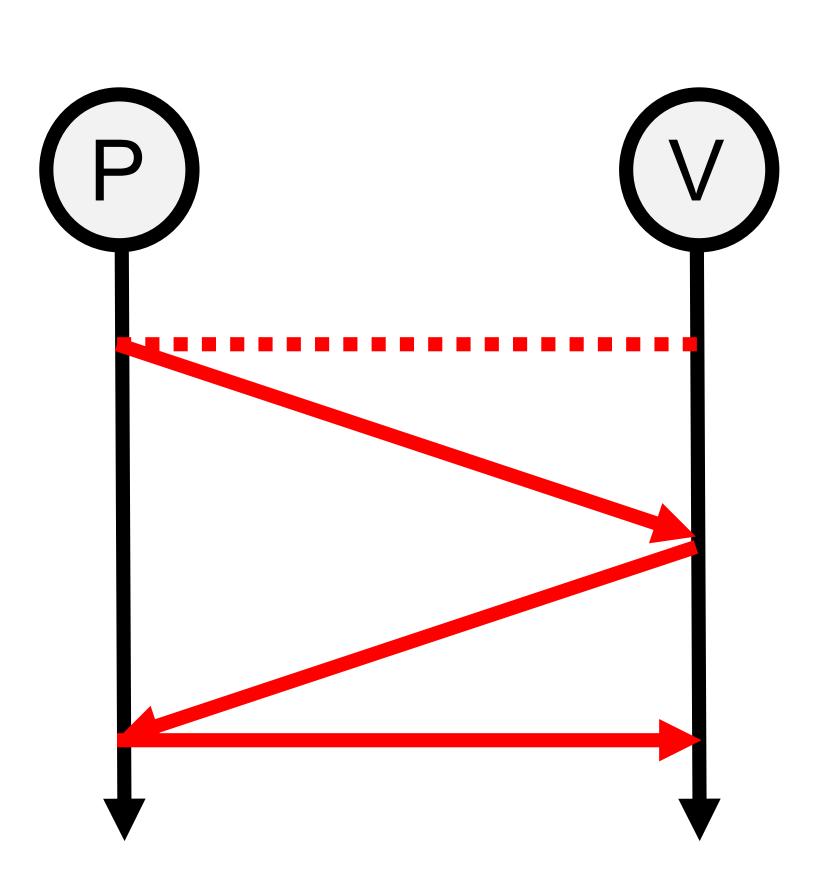
> 정직한 증명자는 검증자를 납득시킬 수 있음

- ▶ 건실성(Soundness)과 영지식성(zero knowledge)
 - 생략

- \triangleright 상호 절차가 시그마(Σ)와 유사해 붙여진 이름
 - > 증명자 -> 검증자
 - 검증자 -> 증명자
 - 증명자 -> 검증자



- 시그마 프로토콜의 일반화
 - $P \rightarrow V$: 커미트먼트(Commitment)
 - $V \rightarrow P$: 챌린지(Challenge)
 - $P \rightarrow V$: 응답(Response) 혹은 증명(Proof)



- 앞서 살펴본 벡터 집합의 지식 증명은
 - 시그마 프로토콜의 한 예
 - $P \rightarrow V: C_0$ (새롭게 선택한 N차원의 무작위 벡터에 대한 새 커미트먼트)
 - $V \rightarrow P : e$ (무작위 스칼라)
 - $P \rightarrow V: (\mathbf{z}, s)$ (N차원의 벡터와 스칼라)

- 보다 간단한 예시:
- ▶ 슈노르 아이덴디티 프로토콜(Schnorr's identity protocol)
 - $P \rightarrow V: R$ (P만이 R = kG인 k를 알고 있는 무작위 곡선 상의 점)
 - $V \rightarrow P : e$ (무작위 스칼라)
 - $P \rightarrow V: s(P \rightarrow s = ex + k = A \rightarrow w)$

INNER PROOF

- 내적 증명
 - ▶ Groth가 제시한 알고리즘
 - ▶ BulletProof의 핵심

- 내적 증명
 - > 증명자가 두 벡터 x와 y를 가지고
 - ▶ 두 벡터의 내적 *∑*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

- ▶ 세 커미트먼트
 - $C_z = tH + zG$
 - $C_x = rH + xG$
 - $C_y = sH + yG$
- > 증명자가 할 일은 검증자에게 다음을 납득시키는 것:
 - ▶ 세 페더슨 커미트먼트들에 대해 $z = x \cdot y$ 를 만족함

- 1. 커미트먼트 단계
- > 증명자 P는 각각 \mathbf{x} 와 \mathbf{y} 에 상응하는 두 논스(nonce) 벡터 $\mathbf{d}_{\mathbf{x}'}$ $\mathbf{d}_{\mathbf{y}}$ 의 커미트먼트를 전송해야 함
- 다음 페더슨 커미트먼트를 전송:

$$A_d = r_d H + \mathbf{d}_x \mathbf{G}$$

$$B_d = s_d H + \mathbf{d}_y \mathbf{G}$$

 r_d 와 s_d 는 무작위 값

- 1. 커미트먼트 단계
- 내적을 증명해야 하므로,두 숨겨진 벡터들의 내적의 커미트먼트를 전송해야 함
-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?
 - ▶ 내적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?

- 1. 커미트먼트 단계
- 수 유노르 아이덴디티 프로토콜을 상기하면:
- 의의 챌린지 e에 대한 응답이 $e\mathbf{x} + \mathbf{d}_{\mathbf{x}'} e\mathbf{y} + \mathbf{d}_{\mathbf{y}}$ 형태일 것임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
 - \rightarrow 슈노르 아이덴디티 프로토콜에서 ex + k에 해당

- 1. 커미트먼트 단계
- > 숨겨진 형태 $e\mathbf{x}+\mathbf{d}_{\mathbf{x}}$, $e\mathbf{y}+\mathbf{d}_{\mathbf{y}}$ 의 내적 $((e\mathbf{x}+\mathbf{d}_{\mathbf{x}})\cdot(e\mathbf{y}+\mathbf{d}_{\mathbf{y}}))$ 은 e에 대한 이차식의 형태
 - 3개의 계수(coefficients)를 가짐
 - 계수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제공해야 함

- ▶ 1. 커미트먼트 단계
- e^2 에 대한 계수는 이미 $C_z = tH + zG$, $z = \mathbf{x} \cdot \mathbf{y}$ 로 주어져 있음
- 나라서 2개만 더 추가로 제공하면 됨
 - $C_1 = t_1 H + (\mathbf{x} \cdot \mathbf{d_y} + \mathbf{y} \cdot \mathbf{d_x})G$
 - $C_0 = t_0 H + (\mathbf{d_x} \cdot \mathbf{d_y}) G$

- ▶ 1. 커미트먼트 단계
- 결론적으로 본 커미트먼트 단계에서 증명자는
 - ightharpoonup 4개의 무작위 스칼라 r_d, s_d, t_1, t_0 와
 - $ightharpoonup 2 개의 무작위 벡터 <math>\mathbf{d}_{\mathbf{x}}, \mathbf{d}_{\mathbf{y}}$ 를 생성
- ▶ 이들로부터 생성한 4개의 페더슨 커미트먼트
 - $A_d, B_d, C_1, C_0 = M$

- 2. 챌린지 단계
- ightharpoonup 검증자가 하나의 스칼라 e를 전송

- > 3. 응답 단계
- 응답 단계에서 증명자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전송

$$f_x = ex + d_x$$

$$f_y = ey + d_y$$

$$r_x = er + r_d$$

$$s_y = es + s_d$$

$$t_z = e^2t + et_1 + t_0$$

- 3. 응답 단계
- \mathbf{F} 벡터의 숨겨진 형태 $\mathbf{f}_{\mathbf{x}}$, $\mathbf{f}_{\mathbf{y}}$ 에 대해 검증자는 커미트먼트를 복구하고 $C_{\mathbf{x}}$, $C_{\mathbf{y}}$ 와 일치하는지 검증
- $eC_x + A_d = ?r_xH + \mathbf{f}_x\mathbf{G}$ $eC_y + B_d = ?s_yH + \mathbf{f}_y\mathbf{G}$

- > 3. 응답 단계
- r_x , s_y 는 상응하는 페더슨 커미트먼트에 대해
- 무작위 값을 만들기 위해 사용됨

- 3. 응답 단계
- ightharpoonup 마지막으로, t_z 에 대한 검증이 필요
 - 이 검증으로부터 내적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
 - 페더슨 커미트먼트 식의 무작위 값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

- > 3. 응답 단계
- $\mathbf{f}_{\mathbf{x}} \cdot \mathbf{f}_{\mathbf{y}}$ $= (e\mathbf{x} + \mathbf{d}_{\mathbf{x}}) \cdot (e\mathbf{y} + \mathbf{d}_{\mathbf{y}})$ $= e^{2}z + e(\mathbf{x} \cdot \mathbf{d}_{\mathbf{y}} + \mathbf{y} \cdot \mathbf{d}_{\mathbf{x}}) + \mathbf{d}_{\mathbf{x}} \cdot \mathbf{d}_{\mathbf{y}}$
 - $(z = \mathbf{x} \cdot \mathbf{y} \, \mathbf{0} | \mathbf{C} \mathbf{Z})$

- > 3. 응답 단계
- ightharpoonup 페더슨 커미트먼트 Comm에 대해 위 식은
- $Comm(\mathbf{f}_{\mathbf{x}} \cdot \mathbf{f}_{\mathbf{y}})$ $= e^{2}C_{z} + e(Comm((\mathbf{x} \cdot \mathbf{d}_{\mathbf{y}} + \mathbf{y} \cdot \mathbf{d}_{\mathbf{x}})) + Comm(\mathbf{d}_{\mathbf{x}} \cdot \mathbf{d}_{\mathbf{y}})$
- $ightharpoonup 준비해둔 <math>C_1, C_0, t_z$ 에 따라:
- $t_z H + (\mathbf{f}_x \cdot \mathbf{f}_y)G = ?e^2 C_z + eC_1 + C_0$

- 완결성
- $eC_x + A_d$ $= e(rH + \mathbf{x}\mathbf{G}) + r_dH + \mathbf{d}_x\mathbf{G}$ $= (er + r_d)H + (e\mathbf{x} + \mathbf{d}_x)\mathbf{G}$ $= r_xH + \mathbf{f}_x\mathbf{G}$

$$eC_y + B_d$$

$$= e(sH + yG) + s_dH + d_yG$$

$$= (es + s_d)H + (ey + d_y)G$$

$$= s_yH + f_yG$$

- **완결성**
- $t_z H + (\mathbf{f}_x \cdot \mathbf{f}_y)G = ?e^2C_z + eC_1 + C_0 \text{ of the first states}$

$$e^{2}C_{z} + eC_{1} + C_{0}$$

$$= e^{2}(tH + zG) + e(t_{1}H + (\mathbf{x} \cdot \mathbf{d}_{y} + \mathbf{y} \cdot \mathbf{d}_{x})G) + (t_{0}H + (\mathbf{d}_{x} \cdot \mathbf{d}_{y})G)$$

$$= (e^{2}t + et_{1} + t_{0})H + (e^{2}z + e(\mathbf{x} \cdot \mathbf{d}_{y} + \mathbf{y} \cdot \mathbf{d}_{x}) + \mathbf{d}_{x} \cdot \mathbf{d}_{y})G$$

$$= (e^{2}t + et_{1} + t_{0})H + (e\mathbf{x} + \mathbf{d}_{x}) \cdot (e\mathbf{y} + \mathbf{d}_{y})G$$

$$= t_{z}H + (\mathbf{f}_{x} \cdot \mathbf{f}_{y})G$$

나라서 정직한 증명자는 검증자를 납득시킬 수 있음

- 어 간결한 내적 증명
 - Bootle의 논문에서
- ▶ 내적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정교하고 현명한 방법 제시
 - 자귀(recursion)의 도입
- BulletProof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와 매우 유사

- > 목적은 두 당사자(증명자와 검증자) 사이의
- 에이터 통신의 양을 줄이는 것
 - ▶ 피아트-샤미르 휴리스틱(Fiat-Shamir heuristic)을 사용해 비-상호작용 형태로 바꾸면 더 간결한 증명이 됨 (생략)
- 영지식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아닌
- 연산에 이점이 있는 방법을 제시

- 하나의 벡터에 대한 고려
- 어떠한 벡터의 커미트먼트를 만들고 증명을 전송하는 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가?

- 하나의 벡터에 대한 고려
- ▶ 10차원의 벡터 $\mathbf{a} = [a_1, a_2, \dots, a_{10}]$ 의 예시:
 - ▶ 페더슨 커미트먼트를 사용
 - 무작위 값은 없다고 가정
 - $A = a_1G_1 + a_2G_2 + \ldots + a_{10}G_{10}$

- $A = a_1G_1 + a_2G_2 + \ldots + a_{10}G_{10}$
- $[a_1, a_2, \ldots, a_{10}]$ 을 공개하는 것으로 지식 증명이 가능
 - > 정보가 공개됨
 - ▶ 10개의 스칼라를 전송해야 함
 - ▶ 타원곡선 시나리오에서는 스칼라 각자가 32바이트에 해당함
- 압축시킬 방법은 없을까?

- $A = a_1G_1 + a_2G_2 + \ldots + a_{10}G_{10}$
- lack 현명한 방법은 커미트먼트 A를 다른 커미트먼트 A'으로 바꾸는 것
 - 벡터의 원소 개수를 줄임으로써 형성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커미트먼트를 내포해야 함

62

- > 커미트먼트 단계
- 원본 벡터를 조각으로 나눔
 - $[a_1, a_2, a_3, a_4, a_5, a_6, a_7, a_8, a_9, a_{10}] = [[a_1, a_2], [a_3, a_4], [a_5, a_6], [a_7, a_8], [a_9, a_{10}]]$
- > 동일한 연산을 G_i 들에 대해서도 수행

- 커미트먼트 단계
- 식의 우변을 5개의 2차원 벡터로 취급:
 - $[a_1, a_2, a_3, a_4, a_5, a_6, a_7, a_8, a_9, a_{10}] = [[a_1, a_2], [a_3, a_4], [a_5, a_6], [a_7, a_8], [a_9, a_{10}]] \cap []$
 - $[[a_1, a_2], [a_3, a_4], [a_5, a_6], [a_7, a_8], [a_9, a_{10}]] = [\mathbf{a_1}, \mathbf{a_2}, \mathbf{a_3}, \mathbf{a_4}, \mathbf{a_5}]$
- G에 관한 부분 역시:
 - $[G_1, G_2, G_3, G_4, G_5]$

- > 커미트먼트 단계
- ▶ 본 예제에서는 10=5X2 라서 두 개씩 묶었지만
- 가수는 소인수분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- ▶ 가령 21개로 시작했으면 21=7X3이니 세 개씩 묶으면 됨

- 커미트먼트 단계
- 사로운 배치를 행렬 형태로 시각화 할 수 있음

```
 \begin{pmatrix} a_1G_1 & a_2G_1 & ... & ... & a_5G_1 \\ a_1G_2 & a_2G_2 & ... & ... & ... \\ ... & ... & a_3G_3 & ... & ... \\ ... & ... & ... & a_4G_4 & ... \\ a_1G_5 & ... & ... & ... & a_5G_5 \end{pmatrix}
```

> 커미트먼트 단계

$$\begin{pmatrix} a_1G_1 & a_2G_1 & ... & ... & a_5G_1 \\ a_1G_2 & a_2G_2 & ... & ... & ... \\ ... & ... & a_3G_3 & ... & ... \\ ... & ... & ... & a_4G_4 & ... \\ a_1G_5 & ... & ... & ... & a_5G_5 \end{pmatrix}$$

- ightharpoonup 행렬의 주대각성분의 합이 <math>A임
 - $\mathbf{a}_{i}\mathbf{G}_{i} = a_{2i-1}G_{2i-1} + a_{2i}G_{2i} \ \forall i \in 1...5$

- > 커미트먼트 단계
- ▶ 전송해야 하는 커미트먼트들의 개수는
 - 이미 알고있는 주대각성분A를 포함해 2X5-1 = 9개
- 대각성분에 관한 수식:

$$-4 \le k \le 4$$
 인 정수 k 에 대해 $A_k = \sum_{\max(1,1-k)}^{\min(5,5-k)} \mathbf{a}_{i+k} \mathbf{G}_{i+k}$

> 커미트먼트의 수를 9개로 줄임

```
\begin{pmatrix} \mathbf{a_1G_1} & \mathbf{a_2G_1} & \mathbf{a_3G_1} & \mathbf{a_5G_1} \\ \mathbf{a_1G_2} & \mathbf{a_2G_2} & \mathbf{a_3G_2} & \cdots & \mathbf{a_5G_2} \\ \mathbf{a_1G_3} & \mathbf{a_2G_3} & \mathbf{a_3G_3} & \mathbf{a_5G_3} \\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\mathbf{a_1G_5} & \mathbf{a_2G_5} & \mathbf{a_3G_5} & \cdots & \mathbf{a_5G_5} \end{pmatrix}
```

```
A_{-4} = a_1G_5
A_{-3} = a_1G_4 + a_2G_5
A_{-2} = a_1G_3 + a_2G_4 + a_3G_5
A_{-1} = a_1G_2 + a_2G_3 + a_3G_4 + a_4G_5
A_0 = a_1G_1 + a_2G_2 + a_3G_3 + a_4G_4 + a_5G_5
A_1 = a_2G_1 + a_3G_2 + a_4G_3 + a_5G_4
A_2 = a_3G_1 + a_4G_2 + a_5G_3
A_3 = a_4G_1 + a_5G_2
A_4 = a_5G_1
```

- 챌린지 단계
- λ 검증자가 하나의 스칼라 λ 를 전송

- ▶ 압축 단계
- 실질적인 압축이 일어나는 지점
- 다음과 같은 새로운 2차원 벡터들을 형성:

$$\mathbf{a}' = \sum_{i=1}^{5} x^i \mathbf{a}_i, \qquad \mathbf{G}' = \sum_{i=1}^{5} x^{-i} \mathbf{G}_i$$

- ▶ 압축 단계
- G'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음:

$$\mathbf{G}' = (G_1', G_2')$$

$$= [x^{-1}G_1, x^{-1}G_2] + [x^{-2}G_3, x^{-2}G_4] + [x^{-3}G_5, x^{-3}G_6] + [x^{-4}G_7, x^{-4}G_8] + [x^{-5}G_9, x^{-5}G_{10}]$$

$$= [(x^{-1}G_1 + x^{-2}G_3 + x^{-3}G_5 + x^{-4}G_7 + x^{-5}G_9), (x^{-1}G_2 + x^{-2}G_4 + x^{-3}G_6 + x^{-4}G_8 + x^{-5}G_{10})]$$

 \mathbf{a}' 에 대해서 x의 지수가 양수인 점만 제외하면 유사:

$$\mathbf{a}'$$

= $[(xa_1 + x^2a_3 + x^3a_5 + x^4a_7 + x^5a_9), (xa_2 + x^2a_4 + x^3a_6 + x^4a_8 + x^5a_{10})]$

- ▶ 압축 단계
- 커미트먼트를 이 새로운 좌표계로 치환:

$$A' = \mathbf{a}'\mathbf{G}'$$

$$= (xa_1 + x^2a_3 + x^3a_5 + x^4a_7 + x^5a_9)G_1' + (xa_2 + x^2a_4 + x^3a_6 + x^4a_8 + x^5a_{10})G_2'$$

- G_1, G_2' 는 2차원 벡터 G'의 두 원소
- 의 식의 곱셈항을 전개해 행렬꼴로 나타낼 수 있음

- ▶ 압축 단계
- 곱셈항을 전개해 행렬꼴로 나타낼 수 있음

- ▶ 주대각성분의 합이 $A = a_1G_1 + a_2G_2 + \ldots + a_{10}G_{10}$ 과 같음
- ightharpoonup 대각성분은 같은 지수를 가진 x 항들이 모여있음

- ▶ 압축 단계
- A와 A'를 연관짓기 위해 검증자는 전체 항을 검증해야 함
- 다음을 계산:

$$A' = \sum_{k=-4}^{4} x^k A_k$$

$$A' = \sum_{k=-4}^{4} x^k A_k = \sum_{k=-4}^{4} \sum_{\max(1,1-k)}^{\min(5,5-k)} x^k \mathbf{a}_{i+k} \mathbf{G}_i$$

- ▶ 재귀 단계
- > 증명자와 검증자 모두 A' 및 G'을 구성할 수 있음이 핵심
 - 에시에서 10차원의 벡터 a로 시작했으며
 - ▶ 현재 2차원의 벡터 a'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
 - ightharpoonup 현재 벡터 a' 그 자체는 증명자만이 알고 있음

- ▶ 재귀 단계
- 만일 600차원의 벡터로 시작했다면?
 - ▶ 60 X 10 으로 간주해 **G**′은 60차원을 가짐
- ightharpoonup 재귀적으로, 60차원의 <math>G'을
 - ▶ 6 X 10 으로 간주해 압축
 - 6차원의 벡터 10개

- ▶ 재귀 단계
- $A \leftarrow A', G \leftarrow G'$ 으로
 - 커미트먼트 단계
 - 챌린지 단계
 - 압축 단계를 반복

- > 공개 단계
- 어러 재귀 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면
 - > 증명자는 해당 벡터를 공개
 - lack 예시에서는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 f a'를 공개
 - $[(xa_1 + x^2a_3 + x^3a_5 + x^4a_7 + x^5a_9), (xa_2 + x^2a_4 + x^3a_6 + x^4a_8 + x^5a_{10})]$

- \triangleright 요약) 공시된 커미트먼트 A에 대한 상호작용의 패턴
 - ightharpoonup 커미트먼트 단계: P가 대각성분 커미트먼트를 전송
 - ightharpoonup 챌린지 단계: V가 x를 전송
 - 아 압축 단계: 양 측이 A', G'을 계산
 - ▶ 재귀 단계: (1) $A \leftarrow A'$, $G \leftarrow G'$. (2) P가 새로운 대각성분 커미트먼트를 전송. (3) V가 x'을 전송. (4) (1)~(3)의 반복.
 - \rightarrow 공개 단계: P가 벡터 a'을 공개

- 얼마나 (압축에) 도움이 되는가?
- 10차원의 경우
 - ightharpoonup 주대각성분의 커미트먼트 A를 제외하고
 - ▶ 추가적인 8 = 9 1 개의 커미트먼트를 전송해야 함
 - ▶ 마지막에 2개의 스칼라를 공개
 - 대략 10개의 스칼라 전송과 비슷한 수준

- 얼마나 (압축에) 도움이 되는가?
- 600차원의 경우
 - ▶ 60차원의 벡터 10개로 압축, 6차원의 벡터 10개로 압축
 - 마지막에는 단지 6개의 스칼라
 - ▶ 각 압축 단계에서 2 X 10 1 = 19 커미트먼트가 발생
 - ▶ 총 2 X 19 + 6 1 = 43 개만 전송하면 됨
- ▶ 600차원을 그대로 전송하려면 600개의 스칼라를 전송해야 했음

- > 지금까지는 하나의 벡터 a에 대해서만 고려함
 - 나 적 증명으로 확장
 - 일반적인 지식 증명: $z = \mathbf{a} \cdot \mathbf{b}$ 인 $\mathbf{a}, \mathbf{b}, z$ 에 관해 적용

- ▶ 10차원 벡터의 예로, 벡터 b를 고려
 - 위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
 - ▶ 단, G를 다른 곡선 상의 점들을 대표하는 H로 대체
 - 챌린지 x를 역수(inverse)인 x^{-1} 로 적용

$$B' = \sum_{k=-4}^4 x^{-k} B_k$$

- $z = a \cdot b$ 에서
 - 두 벡터 모두 압축된 형태
 - \Rightarrow \Rightarrow , $a = [a_1, a_2, a_3, a_4, a_5], b = [b_1, b_2, b_3, b_4, b_5]$

- $\mathbf{a}' = \sum_{i=1}^{5} x^i \mathbf{a_i}$ 와 마찬가지로 \mathbf{b}' 은:
 - \rightarrow 챌린지를 x^{-1} 로 적용했음에 유의

$$\mathbf{b}' = \sum_{i=1}^{5} x^{-i} \mathbf{b}_i$$

Z'과 Z_k 를 구성함:

$$z' = \sum_{k=-4}^{4} z_k x^k, \qquad z_k = \sum_{\max(1,1-k)}^{\min(5,5-k)} \mathbf{a}_{i+k} \cdot \mathbf{b}_i \quad (\text{for } -4 \le k \le 4)$$

- $z' = 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 임을 보이기는 쉬움
 - **a**' = $[(xa_1 + x^2a_3 + x^3a_5 + x^4a_7 + x^5a_9), ((xa_2 + x^2a_4 + x^3a_6 + x^4a_8 + x^5a_{10}))]$ **b**' = $[(x^{-1}b_1 + x^{-2}b_3 + x^{-3}b_5 + x^{-4}b_7 + x^{-5}b_9), ((x^{-1}b_2 + x^{-2}b_4 + x^{-3}b_6 + x^{-4}b_8 + x^{-5}b_{10}))]$
 - $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 $= (xa_1 + x^2a_3 + x^3a_5 + x^4a_7 + x^5a_9)(x^{-1}b_1 + x^{-2}b_3 + x^{-3}b_5 + x^{-4}b_7 + x^{-5}b_9) +$ $(xa_2 + x^2a_4 + x^3a_6 + x^4a_8 + x^5a_{10})(x^{-1}b_2 + x^{-2}b_4 + x^{-3}b_6 + x^{-4}b_8 + x^{-5}b_{10})$ $= a_1b_1 + a_2b_2 + a_3b_3 + a_4b_4 + a_5b_5 + x^{-4}(...) + \cdots + x^4(...)$ = z'

- 요약) 벡터 각각은 물론이고 내적에 대해서도 간결한 증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
 - ▶ 벡터 G, H는 이미 설정되었다고 가정
 - > 증명자가 초기에 (A, B, z)를 공시
 - ▶ A와 B는 커미트먼트이며, $z = a \cdot b$ 를 만족
 - 벡터는 임의의 차원 $n = m_1 \times m_2 \times \dots$

- ightharpoonup 챌린지 단계: <math>V가 x를 전송
- 아 압축 단계: 양 측이 A', B', z', G', H'을 계산
- ▶ 재귀 단계: (1) $A \leftarrow A', B \leftarrow B', z \leftarrow z', \mathbf{G} \leftarrow \mathbf{G}', \mathbf{H} \leftarrow \mathbf{H}'$ (2) P가 다른 인수 m_3 에 대해 새로운 대각성분 커미트먼트를 전송 (3) V가 x'을 전송 . 반복 .
- > 공개 단계: P가 벡터 \mathbf{a}' 과 \mathbf{b}' 을 공개함. 이 둘의 내적은 z'임

- 불렛프루프 논문은 기본적으로 다음을 언급:
 - (1) 내적 지식 논의의 더욱 더 간결한 형태
 - (2) 그러한 지식 논의를 사용해 간결한 범위 증명(range proof)을 만드는 방법
 - (3) 이 아이디어를 일반 산술 회로(general arithmetic circuits)로 일반화하는 방법
- (1)-(2)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

- 더욱 더 간결한 내적 증명
 - 두 스칼라에 대한 고려로부터 시작
 - 하나의 벡터
 - 병렬적인 두 벡터
 - ▶ 내적까지 확장

- 두 스칼라에 대한 고려
- 무작위 값을 제외하고 생각하면
 - ▶ 두 스칼라 a와 b를 동시에 하나의 커미트먼트 $C=aG_1+bG_2$ 로 만들 수 있음
 - 만일 이 커미트먼트를 단 하나의 스칼라만으로 개방하고자 한다면,
 - a와 b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합할 필요가 있음

- Naïve한 통합은 구속 속성을 상실
 - ▶ 가령 a + b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$(a + \alpha)(b \alpha)$ 의 커미트먼트가 될 수도 있음
 -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

- ightharpoonup 사용자별 챌린지에 따른 <math>x를 통해
 - (ax + b)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생각할 수 있음
 - 꽤 괜찮아 보임
- ▶ 그러나 어떻게 검증자가 커미트먼트를 검증할 수 있는가?

- 필요한 것은 두 함수
 - 값 a,b,x로부터 하나의 스칼라 a'을 구하는 함수 f(a,b,x)
 - > 기저들 G_1 , G_2 와 값 x로부터 새로운 기저 G'을 구하는 함수 $g(G_1, G_2, x)$
- $a' = ax + bx^{-1}$ $G' = x^{-1}G_1 + xG_2$

- 두 함수로부터 검증자측은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:
- $\therefore C' = a'G'$ $= (ax + bx^{-1})(x^{-1}G_1 + xG_2)$ $= aG_1 + bG_2 + x^2aG_2 + x^{-2}bG_1$ $= C + x^2L + x^{-2}R$
 - ▶ C는 원본 커미트먼트 $C = aG_1 + bG_2$

- > 커미트먼트 C를 개방하기 위해
 - $lacksymbol{a}$ a, b = 대신해 a', L, R 을 사용할 수 있음
- 어 많은 값을 전송해야하니 비효율적으로 보임
 - 스칼라 대신 벡터를 사용하면?

- > 하나의 벡터에 대한 고려
- ▶ 벡터 $\mathbf{a} = [a_1, a_2, \dots a_n]$ 의 커미트먼트는 $\mathbf{a}G$
- ▶ 이를 반으로 나누면(cut), 그리고 다시 합치면(fold):
 - 벡터 원소의 재정렬
 - $(a_1, a_2, ..., a_{n/2}), (a_{n/2+1}, a_{n/2+2}, ..., a_n) : "cut"$ $([a_1, a_{n/2+1}], [a_2, a_{n/2+2}], ..., [a_{n/2}, a_n]) : "fold"$

- λ 검증자로부터 χ 를 전송받으면 다음을 계산할 수 있음:
 - $\mathbf{a}' = \left(xa_1 + x^{-1}a_{n/2+1}, xa_2 + x^{-1}a_{n/2+2}, \dots, xa_{n/2} + x^{-1}a_n\right)$
- 동일한 작업을 기저들 **G**에 대해 수행:
 - $\mathbf{G}' = \left(x^{-1}G_1 + xG_{n/2+1}, x^{-1}G_2 + xG_{n/2+2}, \dots, x^{-1}G_{n/2} + xG_n\right)$
 - x가 아닌 역수를 적용함에 유의

▶ 따라서 a'G' 은:

⇒
$$\mathbf{a}'\mathbf{G}'$$

= $(xa_1 + x^{-1}a_{n/2+1})(x^{-1}G_1 + xG_{n/2+1}), (xa_2 + x^{-1}a_{n/2+2})(x^{-1}G_2 + xG_{n/2+2}),$
..., $(xa_{n/2} + x^{-1}a_n)(x^{-1}G_{n/2} + xG_n)$
⇒ $\mathbf{a}\mathbf{G} + x^2(a_1G_{n/2+1} + a_2G_{n/2+2} + \dots + a_{n/2}G_n) + x^{-2}(a_{n/2+1}G_1 + a_{n/2+2}G_2 + \dots + a_nG_{n/2})$
= $\mathbf{a}\mathbf{G} + x^2L + x^{-2}R$

L과 R의 계산에는 x가 영향을 끼치지 않음

- 상호작용
 - ightharpoonup 증명자가 <math>L과 R을 계산해 전송
 - λ 검증자가 χ 를 전송
 - 》 양측에서 G'을 구성해 최종 $C' = \mathbf{a}'G'$ 을 계산
- 통신 횟수를 n에서 n/2 + 2로 줄임
 - (a에서 n) vs. (a'에서 n/2, L과 R 전송에 2)

- 반복적으로 적용한다면
 - $> 2 \log_2 n + 2$
 - \triangleright 총 $\log_2 n$ 단계마다의 새로운 L^* 과 R^* 에 2
 - ightharpoonup 마지막에 공개하는 스칼라 a와 b에 2

- ▶ 병렬적인 두 벡터
- ▶ 두 벡터를 하나의 커미트먼트로 만드는 방법은 자명:
 - C = aG + bH

- \rightarrow 두 벡터 모두 차원이 2의 거듭제곱수인 n이라 하면
- $lackbox{a}$ $lackbox{a}$ $lackbox{b}$ $lackbox{r}$ $lackbox{d}$ $lackbox{e}$ $lackbox{e}$

$$L = L_a + L_b$$

$$= (a_1 G_{n/2+1} + a_2 G_{n/2+2} + \dots + a_{n/2} G_n) + (b_1 H_{n/2+1} + b_2 H_{n/2+2} + \dots + b_{n/2} H_n)$$

 $R = R_a + R_b$ 역시 동일하게 계산 가능

- \rightarrow 증명자가 커미트먼트 aG + bH로 시작
- ightharpoonup 반복의 각 단계마다 L과 R의 통합된 형태를 전송
- ▶ 명시적으로 새로운 커미트먼트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짐
 - $C' = \mathbf{a}'\mathbf{G}' + \mathbf{b}'\mathbf{H}' = C + x^2(L_a + L_b) + x^{-2}(R_a + R_b)$

- ▶ 내적의 재도입
- > 증명자가 커미트먼트 C = zG + aG + bH를 주장
 - $z = a \cdot b$
- 검증자가 내적이 올바른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야 함
 - ▶ 반복의 각 단계마다 $z' = a' \cdot b'$ 을 보장해야 함

- 아무런 수정 없이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면
- 새 커미트먼트는:

$$C' = C + x^2L + x^{-2}R = zG + aG + bH + x^2L + x^{-2}R$$

- ▶ 문제는 이제 z가 크기를 감축한 벡터 a'과 b'의 내적이 아니라는 것
 - 사 벡터에 대한 내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함
 - $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 $= (xa_1 + x^{-1}a_{n/2+1}, xa_2 + x^{-1}a_{n/2+2}, \dots, xa_{n/2} + x^{-1}a_n)$ $\cdot (x^{-1}b_1 + xb_{n/2+1}, x^{-1}b_2 + xb_{n/2+2}, \dots, x^{-1}b_{n/2} + xb_n)$

사 벡터에 대한 내적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함

$$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$

$$= (xa_1 + x^{-1}a_{n/2+1}, xa_2 + x^{-1}a_{n/2+2}, ..., xa_{n/2} + x^{-1}a_n)$$

$$\cdot (x^{-1}b_1 + xb_{n/2+1}, x^{-1}b_2 + xb_{n/2+2}, ..., x^{-1}b_{n/2} + xb_n)$$

$$= a_1b_1 + a_2b_2 + \cdots + a_nb_n$$

$$+ x^2(a_1b_{n/2+1} + a_2b_{n/2+2} + \cdots + a_{n/2}b_n)$$

$$+ x^{-2}(a_{n/2+1}b_1 + a_{n/2+2}b_2 + \cdots + a_nb_{n/2})$$

마치 C'이 C를 포함하듯, $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 이 z를 포함하고 있음

- 마치 C'이 C를 포함하듯, $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 이 z를 포함하고 있음
- L과 R을 약간 변형해 나머지 항을 포함하도록 함

$$L = L_a + L_b + (a_1 b_{n/2+1} + a_2 b_{n/2+2} + \dots + a_{n/2} b_n)G$$

$$R = R_a + R_b + (a_{n/2+1} b_1 + a_{n/2+2} b_2 + \dots + a_n b_{n/2})G$$

이제 커미트먼트를 잘 감축할 수 있음:

$$C' = z'G + \mathbf{a}'G + \mathbf{b}'H = C + x^2L + x^{-2}R, \quad z' = \mathbf{a}' \cdot \mathbf{b}'$$

- 본 절차 역시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
 - ▶ 길이 n인 벡터로부터 시작
 - C = zG + aG + bH = L 및 R과 함께 검증자에게 전송
 - λ 검증자는 챌린지 χ 를 전송
 - ightharpoonup 양측은 C'을 계산
- 마지막 단계까지 반복

- 마지막 단계
 - ightharpoonup 스칼라 <math>a, b를 공개
 - > 검증자는 $C^* = abG + aG_1 + bH_1$ 으로 검증

- ▶ 주어진 *Z*가 커밋된 두 벡터의 내적으로 변경되려면
 - ightharpoonup 검증자가 초기 챌린지 x를 제공해야 함
 - 초기 C = z(xG) + aG + bH

- 지금까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지식 증명을 논의
 - 적용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음
- ▶ 어떻게 불렛프루프가
 - 다항식들을 이용해
 - 내적의 형태로
 - > 커밋된 숫자에 대한 범위 증명을 수행하는가?

- - $V = \gamma H + \nu G$

 - ho 무작위 값 γ 를 사용한
 - 기본적인 은닉 페더슨 커미트먼트
- ▶ 원하는 것은 v가 특정 범위 $v \in 2^n . . 2^{n-1}$ 에 있다는 증명

- 범위 증명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?
- Maxwell이 제안한 비트코인의 기밀 트랜잭션
 - ▶ 값에 대한 페더슨 커미트먼트를 만들고
 - 커미트먼트의 동형 특성을 이용해 잔액에 대해 보증

- 이루고자 하는 목표
 - (1) 가능한 증명을 간결하게 만들어,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 양을 줄임
 - (2)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 조건들에 대한 증명을 제공
- (1)을 위해, 내적을 포함하는 외부 다항식을 구성
- (2)를 위해, 다항식을 평가하기 위한 챌린지를 사용

- ▶ 추가적인 표기법
- $\mathbf{k}^{\mathbf{n}} = [1, k, k^2, \dots, k^n]$
 - 정수의 지수승의 벡터
 - ightharpoonup 모든 정수는 $\mod p$ 를 취함

- ▶ 추가적인 표기법
- $\mathbf{a} \cdot \mathbf{b} = [a_1b_1, a_2b_2, \dots, a_nb_n]$
 - 두 벡터의 아다마르 곱(Hadamard product)
 - 아다마르 곱의 결과는 벡터임에 유의

- ▶ 단계 1
- ν 값 ν 를 비트(bit) 표현으로 인코딩
 - $\mathbf{a_L} \in \mathbf{a_L} \cdot 2^n = v$ 인 벡터
 - ightharpoonup 쉽게 말해 v의 이진법 표현

- ▶ 단계 2
- ▶ v가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
- $\mathbf{a_L}$ 의 각 원소는 0 또는 1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더함
 - 이를 위해 보수 벡터(complementary vector) $\mathbf{a_R} = \mathbf{a_L} 1^n$ 을 구성
 - $\mathbf{a_L} \cdot \mathbf{a_R} = 0^n$ 이어야함

- ▶ 단계 3
- 주어진 문제는 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음
- 그 중 두 관점을 먼저 살펴볼 것
 - (1) 단계 2에서 언급한 조건들 (1만큼 차이나는 두 벡터, 아다마르 곱이 0) 각각에 대해 챌린지 y를 사용해 내적을 구성
 - (2) 이들 조건에 v에 대한 조건(이진법 표현)을 더한 세 조건을 챌린지 z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

- ▶ 단계 3
- 방정식의 형태:
 - $z^2\mathbf{a}_L\cdot\mathbf{2}^n+z(\mathbf{a}_L-\mathbf{1}^n-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+(\mathbf{a}_L\circ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=z^2v$

- ▶ 단계 3
- 방정식의 형태:

$$z^2 \mathbf{a}_L \cdot \mathbf{2}^n + z(\mathbf{a}_L - \mathbf{1}^n -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+ (\mathbf{a}_L \circ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= z^2 v$$

- $\mathbf{a_L} \cdot \mathbf{2^n} \, (= v)$
 - ν 벡터 ν 에 대한 조건을 의미

- ▶ 단계 3
- 방정식의 형태:
 - $z^2\mathbf{a}_L\cdot\mathbf{2}^n+z(\mathbf{a}_L-\mathbf{1}^n-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+(\mathbf{a}_L\circ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=z^2v$
- $a_L 1^n a_R (= 0)$
 - ightharpoonup 벡터 $a_{\rm L}$ 과 $a_{\rm R}$ 의 차이가 1이라는 조건을 의미

- ▶ 단계 3
- 방정식의 형태:

$$z^2 \mathbf{a}_L \cdot \mathbf{2}^n + z(\mathbf{a}_L - \mathbf{1}^n -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+ (\mathbf{a}_L \circ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= z^2 v$$

- $a_{L} \circ a_{R} (=0)$
 - ightharpoonup 벡터 $a_{
 m L}$ 과 $a_{
 m R}$ 의 아다마르 곱이 0이라는 조건을 의미

- **단계 3**
- 방정식의 형태:

$$z^2\mathbf{a}_L\cdot\mathbf{2}^n+z(\mathbf{a}_L-\mathbf{1}^n-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+(\mathbf{a}_L\circ\mathbf{a}_R)\cdot\mathbf{y}^n=z^2v$$

- > yⁿ
 - ▶ 벡터가 *n*차원임을 검사하기 위한
 - ▶ *n*차 다항식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

- ▶ 단계 3
- 방정식의 형태:

$$z^2 \mathbf{a}_L \cdot 2^n + z(\mathbf{a}_L - 1^n -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+ (\mathbf{a}_L \circ \mathbf{a}_R) \cdot \mathbf{y}^n = z^2 v$$

- > z²
 - ▶ 조건 세 개를 판단하기 위한
 - 2차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

- ▶ 단계 4
- 수학적 절차를 통해 도출한 방정식을 하나의 내적의 형태로 변환
 - 이러한 일종의 인수분해는 일부 항을 남길 수 있음
 - > 중요한 것은 a_L , a_R 항을 내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
 - 이 a_L , a_R 은 검증자에게 공유되지 않음에 유의

- ▶ 단계 4
- 수학적 절차를 통해 도출한 방정식을 하나의 내적의 형태로 변환:

$$(\mathbf{a}_{L}-z\mathbf{1}^{n})\cdot(\mathbf{y}^{n}\circ(\mathbf{a}_{R}+z\mathbf{1}^{n})+z^{2}\mathbf{2}^{n})=z^{2}v+\delta(y,z)$$

- δ 는 공시된 챌린지들의 함수
 - > 댕글링(dangling) 항
 - $(z-z^2)(\mathbf{1}^n\cdot\mathbf{y}^n)-z^3(\mathbf{1}^n\cdot\mathbf{2}^n)$

- ▶ 단계 5
- ▶ 비로소 단계 3에서 언급 했던 세 번째 관점에 대한 얘기
 - 아직 영지식이 아니라는 점!

- ▶ 단계 5
-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 a_L , a_R 를 숨길 필요가 있음
 - ightarrow 증명자로부터 생성된 두 무작위 벡터 $\mathbf{S_L}, \mathbf{S_R}$ 를 도입
 - 이들 벡터에 대한 숨겨진 벡터 페더슨 커미트먼트를 전송:

$$A = \alpha H + \mathbf{a}_L \mathbf{G} + \mathbf{a}_R \mathbf{H}$$
$$S = \rho H + \mathbf{s}_L \mathbf{G} + \mathbf{s}_R \mathbf{H}$$

- ▶ 단계 6
- 내적에 관련된 식은 숨김 효과를 위해
 - λ 새로운 챌린지 χ 를 이용해
 - 사로운 다항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
- ▶ 마치 내적 증명에서 비밀 벡터 x를 전송하기 위해
 - \triangleright 논스 벡터 \mathbf{d} 에 대해 $e\mathbf{x} + \mathbf{d}$ 를 구성한 것과 유사
- 이렇게 하면 a_L , a_R 을 숨기면서도 논의 증명이 가능

- ▶ 단계 6
- ightharpoonup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$a_{
 m L}, a_{
 m R}$ 가 아닌,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m l 과 m r

$$\mathbf{l}(x) = ((\mathbf{a}_L + \mathbf{s}_L x) - z\mathbf{1}^n) = (\mathbf{a}_L - z\mathbf{1}^n) + \mathbf{s}_L x$$

$$\mathbf{r}(x) = \mathbf{y}^n \circ ((\mathbf{a}_R + \mathbf{s}_R x) + z\mathbf{1}^n) + z^2 \mathbf{2}^n = 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 + \mathbf{s}_R x) + z^2 \mathbf{2}^n$$

$$t(x) = 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t_0 + t_1 x + t_2 x^2$$

- 기존의 식과 비교:
 - $(\mathbf{a}_{L} z\mathbf{1}^{n}) \cdot (\mathbf{y}^{n} \circ (\mathbf{a}_{R} + z\mathbf{1}^{n}) + z^{2}\mathbf{2}^{n}) = z^{2}v + \delta(y, z)$

- ▶ 단계 6
- ightarrow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$a_{
 m L}$, $a_{
 m R}$ 가 아닌,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l 과 r

$$\mathbf{l}(x) = ((\mathbf{a}_L + \mathbf{s}_L x) - z\mathbf{1}^n) = (\mathbf{a}_L - z\mathbf{1}^n) + \mathbf{s}_L x$$

$$\mathbf{r}(x) = \mathbf{y}^n \circ ((\mathbf{a}_R + \mathbf{s}_R x) + z\mathbf{1}^n) + z^2 \mathbf{2}^n = 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 + \mathbf{s}_R x) + z^2 \mathbf{2}^n$$

$$t(x) = 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t_0 + t_1 x + t_2 x^2$$

- 기존의 식과 비교:
 - $(\mathbf{a}_L z\mathbf{1}^n) \cdot (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) + z^2\mathbf{2}^n) = z^2v + \delta(y, z)$

- ▶ 단계 6
- ightharpoonup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$a_{\rm L}$, $a_{\rm R}$ 가 아닌,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l 과 r

$$\mathbf{l}(x) = ((\mathbf{a}_L + \mathbf{s}_L x) - z\mathbf{1}^n) = (\mathbf{a}_L - z\mathbf{1}^n) + \mathbf{s}_L x$$

$$\mathbf{r}(x) = \mathbf{y}^n \circ ((\mathbf{a}_R + \mathbf{s}_R x) + z\mathbf{1}^n) + z^2 \mathbf{2}^n = 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 + \mathbf{s}_R x) + z^2 \mathbf{2}^n$$

$$t(x) = 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t_0 + t_1 x + t_2 x^2$$

- 기존의 식과 비교:
 - $(\mathbf{a}_{L} z\mathbf{1}^{n}) \cdot (\mathbf{y}^{n} \circ (\mathbf{a}_{R} + z\mathbf{1}^{n}) + z^{2}\mathbf{2}^{n}) = z^{2}v + \delta(y, z)$

- ▶ 단계 6
- ho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$a_{
 m L}$, $a_{
 m R}$ 가 아닌,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l 과 r

$$\mathbf{l}(x) = ((\mathbf{a}_L + \mathbf{s}_L x) - z\mathbf{1}^n) = (\mathbf{a}_L - z\mathbf{1}^n) + \mathbf{s}_L x$$

$$\mathbf{r}(x) = \mathbf{y}^n \circ ((\mathbf{a}_R + \mathbf{s}_R x) + z\mathbf{1}^n) + z^2 \mathbf{2}^n = 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 + \mathbf{s}_R x) + z^2 \mathbf{2}^n$$

$$t(x) = 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t_0 + t_1 x + t_2 x^2$$

기존의 식과 비교:

$$(\mathbf{a}_L - z\mathbf{1}^n) \cdot (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) + z^2\mathbf{2}^n) = z^2v + \delta(y, z)$$

- 단계 6
- ightharpoonup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는 $a_{\rm L}$, $a_{\rm R}$ 가 아닌,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l 과 r
 - $\mathbf{l}(x) = ((\mathbf{a}_L + \mathbf{s}_L x) z\mathbf{1}^n) = (\mathbf{a}_L z\mathbf{1}^n) + \mathbf{s}_L x$ $\mathbf{r}(x) = \mathbf{y}^n \circ ((\mathbf{a}_R + \mathbf{s}_R x) + z\mathbf{1}^n) + z^2 \mathbf{2}^n = \mathbf{y}^n \circ (\mathbf{a}_R + z\mathbf{1}^n + \mathbf{s}_R x) + z^2 \mathbf{2}^n$ $t(x) = 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t_0 + t_1 x + t_2 x^2$
 - 나적의 두 항에 x^1 의 계수를 가진 $\mathbf{s_L}, \mathbf{s_R}$ 이 포함됨에 주목
 - 두 선형 방정식 \mathbb{L} 과 \mathbf{r} 이 하나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결합됨에 주목
 - ▶ t는 내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스칼라 값

- 이 6 단계가 증명자와 검증자의 상호작용을 전부 포괄하지는 않았으나
 - 핵심적인 부분임

- 요약) 범위 증명을 내적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
 - 자의 실질적 데이터 표현인 a_{L} , a_{R} 을 가지고 있음
 - ightharpoonup 첫 번째 챌린지인 y를 사용해 벡터의 비트 수를 고정
 - ▶ 챌린지 ∠를 사용해 세 조건(모두 내적의 형태)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강제
 - ▶ 세 항을 하나의 내적으로 표현하고, 공시된 데이터들로만 구성된 댕글링 항을 허용
 - ightharpoonup 마지막으로 무작위 벡터 $\mathbf{S}_{\mathrm{L}}, \mathbf{S}_{\mathrm{R}}$ 을 원본 벡터와 결합하고
 - ▶ 세 번째 챌린지 x를 사용해 구성한 내적을 상수항으로 포함하는 방정식을 만듦

ightharpoonup이 내적을 검증하는 것으로 v가 범위 안에 있음을 검증할 수 있음

- 다항식 t(x)를 구성하고 난 후
 - 내적 증명을 제외하고,
 - > 증명자가 값이 범위 안에 있음을 검증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
 -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?
- > 기본적으로 증명자는 방정식 t(x)를 정직하게 구성했음을
 - 거증자에게 납득시켜야 함

- 이를 위해
 - \rightarrow 증명자는 챌린지 x를 받기 전에
 - 계수 t_1 과 t_2 에 대한 페더슨 커미트먼트들
 - T_1 과 T_2 를 전송
- $T_1 = \tau_1 H + t_1 G$ $T_2 = \tau_2 H + t_2 G$

- ightharpoonup 챌린지 <math>x를 받은 후에
 - x-다항식의 커밋된 형태로 τ_1 과 τ_2 를 결합한 커미트먼트
 - $\tau_x = \tau_2 x^2 + \tau_1 x + z^2 \gamma = 2\pi \Delta s$
- 또한, 내적 $t(x) = \mathbf{l}(\mathbf{x}) \cdot \mathbf{r}(\mathbf{x}) = \hat{t}$ 를 전송
- 이미 전송한 커미트먼트 A, S에 대한 무작위 값에 연관된 값
 - $\mu = \alpha + \rho x = 2$

- ▶ 첫 번째 검증
- 나 값에 대한 페더슨 커미트먼트 $V = \gamma H + \nu G$ 에 대한 검증은 결국
 - t(x)의 상수항이 다음과 같음을 보이는 것:
 - $\hat{t}G + \tau_x H = ?z^2V + \delta G + xT_1 + x^2T_2$

- ▶ 첫 번째 검증
- 방정식의 양 변을 페더슨화된 형태로 검증할 수 있음
 - $\hat{t}G + \tau_x H = ?z^2V + \delta G + xT_1 + x^2T_2$
- 이 대해: $\mathbf{l}(x) \cdot \mathbf{r}(x) = z^2V + \delta + xt_1 + x^2t_2$
- H에 대해: $au_x = au_2 x^2 + au_1 x + au^2 \gamma$

- ▶ 두 번째 검증
- ightharpoonup 검증자는 커미트먼트 A,S가 올바른지에 대한 검증도 수행해야 함
 - $oldsymbol{a}$ 달리 말해, 검증자는 증명자가 챌린지 x,y,z를 수신하기 전에 만든 $oldsymbol{a}_L,oldsymbol{a}_R$ 에 대한
 - ▶ 숨겨진 커미트먼트를 검증해야 함

- 두 번째 검증
-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음:
 - $\mathbf{H}' = y^{-n}\mathbf{H}$ $P = A + xS - zG + (zy^n + z^2\mathbf{2}^n)\mathbf{H}'$ $P = ?\mu H + \mathbf{lG} + \mathbf{rH}'$

- \mathbf{H}' 의 도입은 $\mathbf{y}^{\mathbf{n}}$ 과의 아다마르 곱을 사용하는 $\mathbf{r}(\mathbf{x})$ 의 정의와,
- A의 a_R 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연관짓기 위한 대수적 기법

- ▶ 세 번째 검증
- ▶ 마지막으로, 검증자는 내적이 정확한지를 검증해야 함
 - $\hat{t} = ? \mathbf{l} \cdot \mathbf{r}$

- 요약) 지금까지 언급한 증명자와 검증자 사이의 상호작용
- V, n, G, H, G, H (shared in advance)

$$\begin{array}{cccc} \underline{\operatorname{Prover}} & & \underline{\operatorname{Verifier}} \\ A, S & \rightarrow & \\ & \leftarrow & y, z \\ T_1, T_2 & \rightarrow & \\ & \leftarrow & x \\ \tau_x, \mu, \hat{t}, \mathbf{l}, \mathbf{r} & \rightarrow & \\ & & \operatorname{verify} \end{array}$$

> 검증(verify)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검증을 수행함을 의미

- 요약) 지금까지 언급한 증명자와 검증자 사이의 상호작용
- 이 절차는 본질적으로 영지식에 해당
 - 그러나 간결하지는 않음
- 어떻게 간결함을 줄 것인가?

COMPACT O(logn) INNER PRODUCT PROOF

- ▶ 불렛프루프에서 제공하는 간결한 내적 증명
 - ightharpoonup 오직 모든 것을 통합한 커미트먼트 C만을 공시하고 내적에 관해 주장함
- 마지막 검증 $\hat{t}=?\mathbf{l}\cdot\mathbf{r}$ 과 커미트먼트 P에 대한 검증을
 - 하나의 내적 증명으로 변환하는 방법

- 사전에 기저들 G, H, G, H과 차원 n은 공유되었다고 가정
- 이제 재귀 단계에서 기저들을 치환하는 것만 필요
- > 공개적으로(public):

$$C \leftarrow P - \mu H$$

$$H \leftarrow H' (= y^{-n}H)$$

$$G \leftarrow G$$

$$z \leftarrow \hat{t}$$

- 사전에 기저들 G, H, G, H과 차원 n은 공유되었다고 가정
- 이제 재귀 단계에서 기저들을 치환하는 것만 필요
- 개인적으로(private):
 - $\mathbf{a} \leftarrow \mathbf{l}(x)$ $\mathbf{b} \leftarrow \mathbf{r}(x)$

- ▶ 통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벡터 l, r을 전송하는 대신
 - ightharpoonup 증명자는 C로서 $P \mu H$ 를 전송
- \hat{t} 에 대한 전송에는 변화 없음

- 확장성
 - 오직 통신하는 데이터의 양에만 초점을 둠
 - 어산 비용 또한 중요하지만, 여기서는 무시함
 - lack (조만간 언급할) 비-상호 증명을 사용해, 챌린지 값 x, y, z 대신 증명자 혼자서 도출한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고 가정

- 증명자는
 - 곡선 상의 점 A, S, T_1, T_2 와
 - ightarrow 스칼라 au_{x}, μ, \hat{t}
 - 자귀 단계 별 L, R과
 - ightharpoonup 마지막 두 개의 스칼라 a,b를 전송해야 함
- 따라서 공시된 증명의 총 크기는
 - Arr (곡선 상의 점의 크기) $X(4 + 2 \log_2 n) + (스칼라의 크기) <math>X = 1$

- ~ 곡선 상의 점의 크기와 스칼라는 각각 32 바이트로 인코딩할 수 있음
 - n이 범위의 비트 수라 할 때,
 - ▶ 대략 $32 \times (9 + 2 \log_2 n)$ 크기를 가짐
- 가령 32 비트 범위에서는 608 바이트 정도를
- ▶ 64 비트 범위에서는 672 바이트 정도가 요구됨

- 이는 엄청난 수준의 절감
- ▶ 초기 기밀 트랜잭션의 구현체에 사용된 보로미안 고리(Borromean ring) 서명에 기반한 범위 증명이
 - > 32 비트 범위에 2,500 바이트를 요구한 것과는 대조적
 - ▶ 보로미안 고리 서명은 $\log n$ 스케일링(scailing)을 가지지 않으므로
 - ▶ 64 비트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극적일 것

- ▶ 통합(Aggregation) 아이디어
 - 나 대적 증명이 $O(\log n)$ 스케일링을 가지므로
 - 어러 값을 하나로 연결(concatenate)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

- 가령, 비트코인 트랜잭션에서 여러 출력값을 연결할 수 있음
- 이러 값 v_j 에 대해
 - $ightharpoonup 각각의 커미트먼트가 <math>V_j$ 이고
 - 범위 안에 들어있음을 증명해야 함

- 이 값들을 하나로 연결하면
 - 가령 첫 번째 값이 (십진법으로) 10이고 두 번째가 3
 - n = 4라면 $v_1 = [1,0,1,0]$ 이고 $v_2 = [0,0,1,1]$
 - 이들의 연결은 단지 8비트 표현인 [10100011] 임

- ightharpoonup 두 개의 값 v_1 과 v_2 에 대해 64 비트 범위 증명을 하는 상황
 - 단순하게 두 값 각각에 대해 증명을 수행하면
 - $2 \times (32 \times (9 + 2 \log_2 64)) = 1344 바이트가 요구$
- 내신 값을 연결해 사용하면
 - $> 32 \times (9 + 2 \log_2 128) = 736 바이트만 요구$

- 이 아이디어로부터 여러 범위 증명을 로그 스케일로 처리할 수 있음
- 사실은 값 δ , τ_x 와 커미트먼트 P가
 - 어러 값의 존재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어야 함
 - 자세한 구현은 생략

- > 지금까지의 프로토콜들은 검증자와 증명자 사이에 여러 상호작용이 있었음
 - 이는 실제 적용에서는 어려운 일
- 가령 비트코인에서 매 트랜잭션마다
 - 수 차례의 상호작용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: 매우 큰 오버헤드

- 이는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포함한
 - 아호학적 프로토콜들에게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인
 - > 피아트-샤미르(Fiat-Shamir) 발견법(發見法, heuristic)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음
- 이 발견법은 랜덤 오라클 모델(Random Oracle Model, ROM)에 기반
 - 이 프로토콜이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

- 기본적으로 랜덤 오라클은
 - 입력에 대해 결정론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
 - 무작위 값을 출력하는 블랙박스로 간주
 -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출력을 얻음

- ▶ 피아트-샤미르 발견법에서의 입력은
 - 특히 해당 지점까지의 상호작용의 기록임에 유의
- ightharpoonup 가령, 슈노르 서명에서 챌린지 <math>e는
 - ightharpoonup (서명할 메시지, 논스 점 R, 공개키 P)의 해시로 대체

BULLETPROOFS

FROM ZERO (KNOWLEDGE)
TO BULLETPROOFS